



신청하러 가기

문학으로 떠나는 인천여행

8월17일(화) ~ 9월14일(목)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3시 (5강)

문학작품에는 작가가 살아온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을 배경으로 쓰인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천의 역사와 생생한 생활사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인문적 시선을 기르고자 합니다.

- **교육대상** 인천 시민, 미추홀 주민 성인 누구나
(전 과정 수강 가능자) _선착순 마감
- **교육대상** 인천 시민, 미추홀 주민 성인 누구나
(전 과정 수강 가능자) _선착순 마감
- **교육일정** 8월17일(화) ~ 9월14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3시 (5강)
- **교육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변동 가능)
- **교육비** 무료
- **신청및문의** 미추홀학산문화원 지역문화팀 866-3994

NO	일 정	제 목	내 용
01	8.17	구비문학	먼 바다로부터 떠내려 왔다는 수봉산 전설, 단군의 아들들이 쌓았다는 강화 삼랑성 이야기, 영종 백운산과 천마산 소래산 등지에 전승되는 아기 장수 설화 등 인천의 구비문학에 담긴 옛사람들의 생각을 풀어본다.
02	8.24	고전문학	동방의 시호 고려의 대문호 이규보의 「계양망해지」, 문학산 기슭의 착한 부자 이야기를 다룬 이규상의 「김부자전」, 병자호란 당시 자결했다는 열네 부인의 이야기를 다룬 「강도몽유록」 등 인천의 고전문학에 담긴 인천의 역사를 되새긴다.
03	8.31	현대소설	제물포 개항과 함께 몰려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소설들, 일제강점기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고발한 강경애의 「인간문제」와 이태준의 「밤길」, 6.25 직후 인천의 풍경을 그린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1980년대 달동네 이야기를 다룬 김중미의 「깡이부리말 아이들」 등 인천의 현대소설에 담긴 인천의 상처와 희망을 더듬어 본다.
04	9.7	현대시	1920년대 제물포의 밤을 노래한 김소월의 시, 일제강점기 항구의 풍경을 다룬 김기림과 오장환의 시편들, 인천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노래한 이가림의 소래시편, 함민복의 강화시편 등 인천의 현대시를 통해 인천의 풍경 속으로 침잠해본다.
05	9.14	문학답사	개항 이후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였으며 다양한 근현대문학의 배경이 된 공간을 돌아보면 관련 작품들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이태희
(인천대학교
초빙교수,
문학박사)

본 강좌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민주시민교육 거점기관 및 운영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강좌입니다.